

청년 80% “비혼 동거 찬성”



▲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지난해 한국 청년 중 2명중 1명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도 10명중 4명 수준까지 늘었다. 청년 10명중 8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사는 이른바 '비혼 동거'에 찬성했다.

지난 2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53.5%에 달했다.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39.6%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34.7%도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출산에 대해선 남자(40.2%)가 여자(38.8%)보다 동의 비중이 높았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36.4%로 10년 전(56.5%)보다 2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33.4%)'을 꼽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결혼자금 부족이 40.9%로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여성은 결혼자금 부족(26.4%)과 결혼 필요성 못느낌(23.7%)이 절반을 차지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비혼동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은 10년새 꾸준히 늘며 지난해 80.9%를 기록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역대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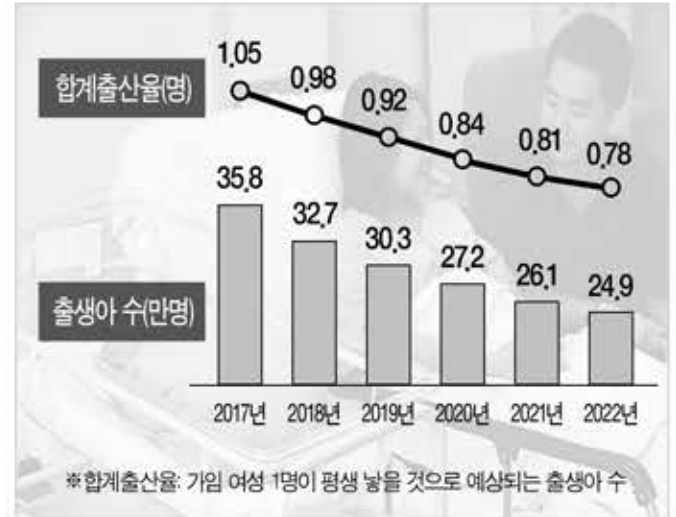
한국의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4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는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고 전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같은 2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2012년 1.26명을 정점으로 2018년 0.98명으로 1명을 밑돌았으며 이후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08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62명(6.8%) 감소했다.

2분기 사망자 수는 8만 3,359명으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했던 지난해 동기보다 7,142명(7.9%)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분기 인구는 2만 7,272명 자연 감소했다.



▲ 2017년 이후 지난 6년간 연도별 출생아 수 추이. 자료=통계청

6월만 놓고 보면 8,205명이 자연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44개월째 감소세다. 출생아 수는 1만 8,61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명(1.6%)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2만 6,820명으로 1,900명(7.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고물가에 상반기 실질임금 사상 첫 감소

고물가 영향으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올해 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 31일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3만 7,000원(세전)으로 지난해 같은 달(366만 3,000원)보다 2.0%(7만 4,000원) 올랐다고 전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396만 3,000원으로 9만 8,000원(2.5%)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174만 7,000원으로 4,000원(0.2%)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41만 7,000원으로 4만 6,000원(1.4%)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은 530만 8,000원으로 17만 원(3.3%) 늘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을 반영한 6월 실질임금은 336만 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38만 5,000원)보다 오히려 2만 2,000원(0.6%) 감소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은 7만원 정도 늘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은 오히려 2만원가량 줄었다는 얘기가.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가 올해 2월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6달째 다시 내리막길이다.

이에 따라 1~6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1만 3,000원)보다 5만 5,000원(1.5%) 줄었다. 상반기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